<10.16873/tkl.2016. 73. 55>
한국문학논총 제73집(2016. 8) 55~89쪽

아리랑유산 가치와 축제형 킬러콘텐츠

이 창 식*

차 례

1. 머리말
2. 아리랑 관련 구비문학유산 가치와 지역축제의 정체성
3. 아리랑유산의 축제성과 축제형 킬러콘텐츠
4. 맺음말

국문초록

‘아리랑유산’은 19세기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양한 곡으로 분화하며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대표적인 민요로서 한국의 구술사와 구비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콘텐츠라는 점 등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높이 평가되었다.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은 향토 아리랑의 지속적인 발굴·지원 등 아리랑의 보존·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취향시대에 맞추어 아리랑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콘텐츠 창출을 통해 아리랑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아리랑’은 국가 중요무형문

* 세명대학교 교수

화재, 세계인류무형유산인 셈인데 아리랑축제의 다양성도 기대된다.

아리랑축제의 변신은 진행형이다. 아리랑축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 없이는 이벤트형 축제와 경쟁할 수 없다. 구비문학은 구술문화이면서 지역문화유산의 핵심 영역이다. 전형 위주의 무형유산 등재 취지에 우선 부합하면서 원형과 변형의 매력을 아리랑축제로 승화시켜 가야 한다. 구비문학의 본질적 공유 가치 곧 아리랑 전형 가치를 찾아 축제 소비자 향유 욕구에 부응하는 창조적 전략이 필요하다. 축제 평가 준거 전환 촉구와 지역연고권 자체 스토리텔링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신명공동체 축제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 구비문학 공유 DNA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융복합테마파크형 아리랑축제는 연고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세가 되고 있다. 지역 이름을 붙인 아리랑축제는 보전, 복원, 계승 등 다원론적 정돈 위에 테마 맞춤형 킬러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실경뮤지컬, 소리홀로그램, 비보이마당놀이, 재담아리랑판 등 항목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리랑박물관, 전수관 등 논의와 연결하여 보다 치밀한 융합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연구자는 '아리랑'에 대한 학문적 성취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성취-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소스 영역-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소스는 구비적 웃음, 감성적 재미, 공공 상상력, 치유의 행복감 등이다. 구비문학 구술자원 활용 영역에서도 장소성과 지역성을 우선해야 한다.

K-아리랑 형태의 주도 한류축제는 국가를 넘어 인류공유자산의 소통과 공감 트렌드의 표본이 될 전망이다. 최근 K-문화 붐에도 불구하고, OO아리랑축제는 지역에서의 소통되는 잔치에 머물러 있다. K-팝 흐름으로 보아 K-아리랑 축제도 가능성이 크다. 남북아리랑축제, 한중아리랑축제, 한일아리랑축제 등도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남북아리랑축제 구성과 협력 자체가 아리랑정신에 부합한다. 아리랑의 공연성과 대동성은 남북 모두 인류무형유산 등재와 한민족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명시되어 축제화가 더 다양해졌다. 다양해진 만큼 국가와 지역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아리랑축제와 K-아리랑 공연의 비전 제시로 축제형 킬러콘텐츠 개발을 확장해야 한다.

주제어 : 아리랑유산, 아리랑축제, 세계인류무형유산, 스토리텔링, K-아리랑, 축제형 킬러콘텐츠

1. 머리말

'아리랑'은 판소리와 제주무가, 강강술래, 남사당, 농악 등의 항목처럼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목록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리랑은 한국인의 삶의 구비적 현장과 밀접하다는 것, 한국인의 마음 속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것 때문에 국가상징화 목록[1]에 일정하게 자리하였다. 유네스코 등재 후 뒤늦게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전통적 상징성을 분명하게 공유하게 되었다. 유네스코의 남북 인류무형유산 등재, 아리랑상이 말해주듯이 아리랑은 세계 무형소리문화유산의 상징[2]이 된 듯하다. 아리랑유산의 상징성은 남북 모두 한민족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리랑의 정체성(正體性)은 한국 민요의 역사성과 민속성 그리고 현재성 등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아리랑에는 한민족 구비적 공감대의 울림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구술문화로서 아리랑은 일반민요 범주를 넘어서 원형, 전형, 변형의 전통문화 상징성을 보인다. 아리랑유산도 신화처럼 다면적 사설과 유래

---

1) 문화체육관광부, ≪2008 아리랑 현황조사보고서≫, 2009, 233-237쪽. 이후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해서 만든 무형문화유산 당시 예비목록(2011년 작성)을 보면, 아리랑을 1순위로 해서 김치, 인삼, 구들, 제주해녀, 막걸리, 장 등으로 순번이 매겨져 있다.

2) 이창식, <아리랑, 아리랑콘텐츠, 아리랑학>, ≪한국민요학≫ 21집, 한국민요학회, 2007, 181-212쪽.

연고담이 일단 축제콘텐츠의 원전으로 1차 자료가 된다. 이 1차 자료는 새로운 시각과 정치한 분석을 통하여 2차, 3차 가공콘텐츠의 스토리텔링으로 확장되면서 킬러콘텐츠 형태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때에는 이야기와 시놉시스를 만들어내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그것을 가공하는 예술적 심미안과 감성 그리고 가공된 텍스트를 보기 좋게 편집하고 기획하는 디지털공학적 문화기술까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능력이 요구된다. 아리랑축제에 대한 정체성 연구와 OSMU의 기획 담론은 아리랑에 대해 종합예술적 접근과 수요층의 감성적 소통방식을 동시에 살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구비문학 또는 구술자원 관련 지역축제는 축제 소재 '소스'인 구술문화, 지역문화에 대해 정체성과 수요층의 다양한 대중적 소통방식에 기대어 구성된다.[3] 축제 활동이 진행형이기에 단정할 수 없으나 지역구비자원 정보가 '공공자산'이라는 인식 속에 지식산업으로서 경쟁과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리라 예견한다. 아리랑유산 관련 축제는 다른 특정 테마축제와 달리 예술성과 대중성, 현재성 등을 주목하여 구비문학 본래 특성의 장점-구비성, 공동작, 현장성 등-을 살리고 있다. 구비문학유산 관련 축제의 연구방향은 축제항목 구술적 측면 발굴과 문화상품 가치창출 과정의 문제점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4] 오늘날 문화유산 상품의 세 국면 곧 쌍방향성, 동시다발성, 고부가치성의 혁고정신(革古鼎新) 영역을 집중하여 논의한다. 특히 구술문화의 가치창조에 대한 공감과 공유는 구비문학의 공공자원화 영역으로 매우 중요하다.[5] 기획 담론 역시 순수학문 영역을 포함하여 학제간 통합 또는 지역학으로 다루

3) 이창식, <생활문화와 무형유산의 조사·정리·활용 실제>, ≪지역 생활문화와 무형유산의 정리·보존·활용≫, 국사편찬위원회, 2015, 19-63쪽.

4) 안이영노·김광욱, <입으로 새기는 현대적 축제-구비문학과 지역축제의 상생을 위하여>, 한국구비문학회 편, ≪현대사회와 구비문학≫, 박이정, 2005, 311-347쪽.

5) 한양명, <구비문학으로 축제 만들기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구비문학연구≫ 2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103-125쪽.

어져야 할 것이다.

2. 아리랑 관련 구비문학유산 가치와 지역축제의 정체성

아리랑과 같은 구술문화의 현재적 소통방식은 축제와 공연 분야가 으뜸이다. 아리랑축제는 테마축제, 관광축제, 교육축제, 화합축제 등의 성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체로 상생과 신명의 축제라는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뗏목아리랑 관련 축제만 하더라도 정선, 영월, 인제 등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6] 아리랑의 지역축제 항목에 편입된 사례로 정선, 밀양, 진도 등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아리랑 관련 축제는 독자적인 경쟁력과 대표 브랜드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네트워크 형태 순회의 축제성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리랑축제는 아리랑 구연 연고지 중심의 전통적 문화행사에 머물러 있다가 등재 이후 행사용 축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표 1>처럼 거론될 대상을 보면, 대부분 OO아리랑 연고권을 바탕으로 한 이벤트형 문화행사가 많으며 대구, 광주, 제주, 서울 등과 해외에서도 아리랑을 걸고 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최근 아리랑축제는 아리랑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과 선점 효과에 둔 지역별 아리랑민요의 축제상품화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2) 내부 사정을 관찰해 보면 무늬만 아리랑이지 실제 아리랑의 전형성을 살린 항목이 별반 없다. 문체부 축제 평가 지표도 이러한 경향에 한 몫을 하였다.

---

6) 이창식, <무형문화조사사업의 의미와 아리랑유산 지정>, ≪한국민요학≫ 36집, 한국민요학회, 2012.

〈표 1〉 아리랑계열 주요 축제

번호	명칭	문화재	상징	지역	내용
1	정선 아리랑제	강원도 무형 문화재 1호	원조/본향	강원 정선군	아리랑 기능보유자 정선아리랑 창극, 정선아리랑 마당극, 정선아리랑 총체극, 아라리 문학축전 보유자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김순녀(2003), 김길자(2006) 등은 가족 3대 소리꾼
2	밀양 아랑제	경남 문화재		경남 밀양시	아리랑공연, 용호놀이, 장치기 백중놀이, 학바위춤 게줄당기기, 씨름대회 줄다리기, 석전
3	진도 아리랑제	전남 문화재		전남 진도군	아리랑비, 군민의 날 기념식, 진도민속경연대회, 남도민요전국경창대회, 국화 축제, 논배미 축제 진도아리랑 전승 현장과 가사집의 발간/박병훈
4	문경 아리랑제		새재/ 고개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아리랑고개, 헐버트 아리랑비 건립. -최초 서양악보로 기록된 헐버트의 아리랑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아리랑에서 문경새재로 대표되는 문경아리랑의 사설.
5	상주 아리랑제		고개/ 동학	경북 상주시	아리랑고개 원형 보존, 이주역사, 순수 민간 주도행사, 상주 계산동 사람들 상주아리랑 공연.
6	영천 아리랑제			경북 영천시	아리랑경창대회 전국경창대회는 (사)영천아리랑연구보존회주관 사설/아주까리 동배야 더많이 열려라 산골집 큰애기 신바람난다 아라린가 스라린가 영천인가 아리랑고개로 날 넘겨주소 *1930년대 용천 용어 나옴.
7	중국 조선족 아리랑 축제	지속 되지 않음	소수민족 유산	동북 삼성	국가중요비물질문화재 지정 '연변무형문화유산화첩' 김봉관 등 조사자 자문
8	북한 아리랑 축제	인류 무형 문화 유산	집체	평양	아리랑축제는 북한정부에서 매년 열리는 대형 단체체조활동이다. 2002년부터 매년 평양의 오일체육관에서 열리는 아리랑축제는 웅장한 규모로 북한의 혁명역사를 재현한다. 그 중에 김씨 부자설도 포함된다. 또 북한 건국 이후의 건설 성과와 당시모습도 재현된다. 2007년에 북한 아리랑축제의 장면은 기네스세계기록을 세웠으며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축제로 선정되었다.

9	쓰시마 아리랑제		쓰시마 마쯔리	일본 대마도	조선통신사행렬 후지오우기회 (일본 전통무용). 조선통신사행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한일 공동 협의/ 기록유산 영역으로 추진. 대마도 아리랑축제는 에도시대 때 약 200년간 12회에 걸쳐 대마도에서 에도까지 조선통신사행렬을 재현한 대마도 최대규모의 최대축제임. 매년 8월 첫째주 토/일요일 이틀.

아리랑축제는 전통적 상징성을 분명하게 공유한 기반 위에 가치창조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리랑의 유전인자는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현재, 미래의 변신을 누구든 앞질러 말할 수 없다. 구비자원으로서 아리랑의 지역축제 전략은 아리랑의 세계화 방안을 위한 학제적 통섭의 체계화를 염두에 두고 현실적 대안론 위에 구상되어야 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국제컨퍼런스[7]처럼 아리랑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마인드가 필요하다. 지역연고를 강조하더라도 차별화 전략 못지 않게 공감대 수준성이 중요하다. 항목 실현 과정에서 예술적 깊이와 대중적 호응을 고려해야 한다.

아리랑의 생성층위로 보아 토속민요, 신민요, 축제민요 등이 있을 수 있다.[8] 지역축제와 관련된 아리랑은 토속성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문화적 공공 공연(cultural performance)도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9] 지역마다 향토성과 세계성을 강조한 축제민요를 살리고 있다. 정선과 진도, 밀양 세 곳의 아리랑은 지명도 덕분에 일찍 아리랑축제를 시작하였다.[10] 밀양아리랑(아랑문화)제[11]는 영남아리랑이 지닌 일제강점기

7) 세계탈문화예술연맹(IMACO)은 학술대회를 비롯한 탈 관련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가공콘텐츠 전시 연구 등을 동시다발로 추진하였다.
8) 이보형, <아리랑소리의 생성문화 유형과 변동>, ≪한국민요학≫ 26집, 한국민요학회, 2009, 95-123쪽.
9) 이창식, <아리랑유산의 공공성>, ≪공연예술적 감성과 킬러콘텐츠≫, 월인, 2016, 143-145쪽.
10) 권오성, <아리랑의 상징성과 세계성>, ≪아리랑의 세계화와 영남아리랑의 재발

이후 유희요 과정과 아랑전설에 바탕을 둔 지역축제이다. 진도아리랑제는 섬 공간 특유의 역사성과 공연성－돈지리 등 마을소리방－을 살리면서 남도 공연예술을 연결시킨 지역축제이다.[12] 정선아리랑제[13]에는 창곡 자체가 서정적 자연성으로 깊은 고을의 신명이 있고 역사적 한이 배어 있고 가창자(歌唱者)들을 유지하는데 그 특성을 살려 시작한 지역행사용 축제였다.[14] 축제마다 그 지역의 풍토적 정체성에 부합하여 전개되고 있다. 아리랑축제에는 토속적 장소성과 지역적인 현실성, 구비전승다운 전통성, 그리고 주어진 지역 사람들의 편향성이라는 소리문화유산의 특성이 드러나 있다.[15]

이러한 아리랑의 지방색(地方色)과 토리[16]를 살려낸 지역축제는 세계화 과제에 부딪혀 있다. 서울 성북아리랑축제, 상주아리랑제, 공주아리랑제, 문경아리랑제, 영천아리랑축제 등이 그것이다. 그 곳에 가면 아리랑의 복원된 소리나 OO아리랑 이름으로 공연을 볼 수 있다. OO아리랑을 부르는 가창자는 이제 아리랑축제의 주인공처럼 그 곳에 자리잡고 있다. OO아리랑은 그 지역민의 삶과 정서에 뿌리내려 투박하지만, 구술문화가 그러하듯 변신하는 중이다. 표출방식의 노래문화로서 아리랑 구연은 전통방식을 벗어나 축제공연용, 민요경창용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OO아리

견≫, 영남민요아리랑보존회, 2009, 3-9쪽.

11) 서정매, <밀양아리랑의 변용과 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35집, 한국민요학회, 2012 : 김은정, <아랑전설의 축제화 양상과 그 사회 문화적 의미>, 안동대석사논문, 2002.

12) 나경수, ＜진도아리랑형성고＞, ≪호남문화연구≫ 제18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88, 31－68쪽.

13) 김연갑, <정선아리랑제>, ≪한국축제의 이해≫, 새미, 2006, 267-312쪽.

14) 정선아리랑제의 흐름에는 ≪정선아리랑≫(연규한 편, 1968), <정선아리랑 음반>(묵계월・최창남 창), <정선아리랑 소리극>(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정선아리랑 문화재>(강원도 제1호, 1971)), 정선아리랑제(1975년 지역축제), 세계화를 위한 정선아리랑 콘텐츠사업(2005년 이후) 등이 있다.

15) 이창식, <전통민요의 자료활용과 문화콘텐츠>, ≪한국문학콘텐츠≫, 청동거울, 2005, 117-151쪽.

16) ≪아리랑종합전승실태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6, 21-70쪽.

랑이라 해도 원형 위주의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전승 전략 없이는 보존 맥락에도 문제가 있다[17].

기능보유자로서 가창자 보존을 살리면서 아리랑의 창조적 국면을 열어가야 한다. 보존의 표면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통은 창조한다는 논리처럼 자체 자발적 내성 찾기도 중요하다. 아리랑은 지역민들의 삶의 시각에서 보면 전통사회의 기반을 읽고 점점 설자리를 잃어 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또다른 패러다임에 적응되고 있다. 고유의 농경문화 시대는 사라진 것이기에 전통민요인 아리랑의 본래 모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날로그 시대의 산물인 아리랑은 개별 문화로서 그 특수성과 지역성, 전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문화관광 활용성, 무형문화재 시연성, 축제프로그램 공연성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18]

아리랑유산에는 가치창조 첫 번째 국면이 대동 곧 신명풀이다. 소리판, 놀이판에서 누구나 어울리는 신명성이 내재되어 있다.[19] 대동정신의 신명과 같은 감성이 자리하고 있다. 크게 하나 되는 어울림 정신이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노래하는 사설이 많다. 아리랑은 닫힌 사회에서 막힌 것을 풀어내는 소리로 쉽게 하나되는 속성이 있다.[20] 시적 화자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대상이 병이 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마음과 아리랑 후렴구로 해소하는 방식이다. 한도 녹이고 옹이도 없애고 어두운 그늘도 치유하는 현상이다. 실제 삶터나 놀이판에서는 오히려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21] 슬픈 사설이라 해도 현장에서는 긍정의 감흥이 전이된다. 아리랑의 놀이적 성격은 소리문화유산의 독특한 유전인자인 셈이다. 농경문화적 신명은 아리랑의 미래지향적 변신 유전자라

17) 강등학, <축제와 민요>,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6, 76-78쪽.
18) 이창식, <아리랑의 정체성과 현장성>, ≪민요론집≫ 6집, 민요학회, 2001, 321-344쪽.
19) 김열규, ≪아리랑 역사여, 겨레여, 소리여≫, 조선일보사, 1987.
20) 이창식, <아리랑의 정체성과 현장성>, ≪민요론집≫ 6집, 민요학회, 2001, 321-323쪽.
21) 김열규, ≪아리랑 역사여, 겨레여, 소리여≫, 조선일보사, 1987.

고 생각한다.

아리랑의 시성(詩性)에는 신명풀이의 오묘한 정서가 함축되어 있다. 이는 한국인 삶의 밑바닥에 뿌리내린 넋두리에서 우러나온 서정에 연유한다. 시성의 원리에는 소리문화의 원형질이 담지되어 있다. 특히, 다른 구비문학 장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솔한 사랑의 정서를 보게 된다. 아리랑의 농경문화의 감성과 상상력은 자연과 연관된 친연성에 비롯된 것이다. 아리랑의 진실 표출하기는 친생태의 비유성-하늘, 땅, 사람 하나로 어울림-을 통해 그 절묘한 맛을 보태고 있다.[22] 아리랑의 본질에는 생리현상의 생존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인간적이라 해야 옳고 이 신명적 국면이 아리랑축제의 본질과도 상통된다.[23]

아리랑유산에는 가치창조 두 번째 국면이 저항 곧 구비적 결집력이다. 아리랑의 민중적 성격은 근대이행기에 저항적인 목소리와 민중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담지하고 있다.[24] 아리랑의 저항적 공유인자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민족노래로서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다.[25] 흔히 아리랑은 한 민족 동질감의 노래유산이기에, 누구나 자연스럽게 부른다. 고향의 아리랑을 이주와 함께 옮겨가 어디에든 아리랑이 전승되고 있다.[26] 고려 유신들이 망국한을 읊었다는 정선아라리는 뭇사람이 부르는 연정가, 의병과 광복군이 부르는 항일가로,[27] 때로는 특정 집단이 부르는 소망가로 확장되면서 멍석소리판의 원형으로 자리를 잡았다.[28]

---

22) 박민일, ≪아리랑정신사≫, 강원대출판부, 2002.
23) 김열규, ≪한국인의 신명≫, 주류, 1882, 42-43쪽.
24) 김시업, <근대민요 아리랑의 성격형성>,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비평사, 1985, 254쪽.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싸우다 싸우다 아니되면 / 이 세상에 다 불을 지르자(<아리랑>, ≪조선가요집≫, 1931)”
25) 이용식, <만들어진 전통, 일제강점기간 아리랑의 근대화, 민족화, 유행화 과정>, ≪동양음악≫ 27, 동양음악연구소, 2005.
26) 임동철・이창식, ≪중국 조선족의 문화와 청주아리랑≫, 집문당, 2004, 51-76쪽.
27) 정선군, ≪정선아리랑데이터베이스자료집≫, 2008, 24-31쪽.
28) 박민일, ≪한국 아리랑문학 연구≫, 강원대출판부, 1989 ; 박민일, ≪아리랑 자료집≫ Ⅰ・Ⅱ, 강원대출판부, 1991, 1993.

아리랑유산에는 가치창조 세 번째 국면이 상생 곧 구비적 치유력이다.[29] 치유 국면은 가창자 이력 면담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구비문학의 화자와 청자의 소통방식이 실제 현장에서는 향유자들이 위안과 해소를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아리랑소리꾼 신용녀, 석팔례 등은 아리랑을 통해 어려운 순간을 넘겼다고 하였다. 그 상징적 고비가 아리랑고개라고 말한다. 아리랑 애니멘터리 면담에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고개와 같은 것은 아리랑축제의 공간성이면서 축제항목의 상상소 진원지 역할을 하여 변주한다.

이러한 세 국면과 함께 주목할 것은 구비유적과 장소성이다. 구비유적은 기록문학과 달리 구비현장이면서 향유층의 진실 드러내기 근거가 된다.[30] 공동체 제의와 신화 구술물과 연관된다. 무형구비문화유산 지정 역시 1차적으로 계보와 더불어 강조한 점이다. 축제성의 변이도 여기서부터 비롯된다.[31] 축제의 대동성도 이에 편승하여 다양한 매력성과 감동성을 선보인다. 안동세계탈페스티벌이 이러한 사례이다. 아리랑축제 역시 OO아리랑의 구비유적에 기대어 의미를 점차 확산하고 있다.

구비유적과 연동된 장소성은 증거 위주의 공간성을 넘어서서 동시대적 교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구비유적은 물적 증거 이상의 진정성을 기억시킨다. 구술의 한계를 웅변으로 추리하게 하는 대상이다. 더구나 구비문학 관련 축제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장소성의 중심에는 분명한 구비유적이 포진하고 있다. 향유주체는 보이지 않지만 이 구비유적의 존재감으로 원형, 전형, 변형의 길을 보여준다. 원형의 계보적 증좌가 희미해

29) 전통사고로 퇴계 이황의 악론과 관련된 활인심방(活人心方)의 자연생태적 사유체계가 남아있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아리랑은 누구나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 아바타처럼 영성과 생태성의 융합적 치유콘텐츠가 아닌가 한다. 음악치료학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30) 이창식, <온달문화축제의 의미와 성격>, ≪국제아세아민속학≫ 2집, 국제아세아민속학, 1998.

31) 류정아, <축제, 그 현대적 의미와 표상>, ≪축제와 문화≫, 연대출판부, 2003, 41-43쪽.

도 전형의 공유적 담론 탓으로 설득하고 있다. 아리랑의 변형 축제 역시 지역연고적 기억과 상상력의 추억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3. 아리랑유산의 축제성과 축제형 킬러콘텐츠

아리랑축제에 대한 활성화 작업은 최소한 역동적인 공연예술축제를 전제로 아리랑의 재해석, 가치창조, 스토리텔링마케팅의 프로그램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축제를 통한 활성화와 킬러콘텐츠의 상생이다. 원형자원의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인문응용의 OSMU/MSMU 이론－라는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작 전략을 통한 킬러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 곧 아리랑의 원형적 자료를 이용해 타 갈래로 하이퍼텍스트화하는 작업[32]이 이뤄져야 한다. 아리랑의 킬러콘텐츠는 이러한 종합적 자료 체계화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리랑의 디지털스토리는 축제의 명품을 창조하되, 그 동안 신화적인 상상세계 또는 신념에만 매달려 신비적 경지를 공연화하여 보여주게 될 것이다.[33]

- 축제지향형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소재 개발 분야 : 축제형 문화콘텐츠 시나리오 창작소재 개발을 위한 역사, 설화(신화・전설・민담), 서사무가, 야담, 재담 등의 문화유형 비교, 분석, 해설을 재구성하여 축제의 정체성에 맞는 기획안과 스토리텔링 마케팅 세우기.
- 축제지향형 문화콘텐츠 기반 및 상품 개발 분야 : 감칠(感七)맛 나는 명품축제를 목적으로 먹을거리, 잘거리, 빠질거리, 미칠거리, 살거리, 얻을거리, 공부거리 등의 소비자 향유층 중심을 통해 독특한 축제문화상품 가꾸기.

---

32) 최혜실,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2006, 미시적인 개별연구의 바탕이 지속되면서 보다 거시적인 문화담론 연구로 승부로 함.
33) 이창식, <아리랑유산의 세계화와 스토리텔링>,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합콘텐츠≫, 글누림, 2015, 195-238쪽.

- 축제지향형 문화콘텐츠 시각 및 청각 소재 개발 분야 : 축제형 문화콘텐츠 시각 및 청각 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고분벽화, 색채미술디자인, 놀이, 구전민요, 무가 등 음악, 건축, 무용, 무예, 공예, 복식, 테마파크 등의 문화원형을 활용하여 복원, 비교, 분석, 해설, 재구성 등을 넘어 예술적 감동 축제 레파토리 만들기.

현대는 문화정보화시대답게 지자체마다 OO축제 등을 위한 지역구비문화의 자원화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시대적 트렌드를 놓치고 있다. 디지털기술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고유의 문화인자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추세에 있다.[34] 이런 추세에 따라 구비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관심과 활용 사업이 나타나고 있다.[35] 기존 아리랑축제의 문화콘텐츠 개발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고 소통의 담론도 부족하다. 특히 축제콘텐츠 개발은 시작에 불과하고 인문학적인 예술감각과 스토리텔링의 전문성이 보태어져야 하는데 발이 느리다. 앞서 보듯 OO아리랑축제의 변신은 늘 진행형이다. 축제콘텐츠의 성공여유는 적어도 구비적 상상력과 지역구술자원의 발상 전환이 추구되어야 한다.

강원도 정선에는 문맥화되고 검증된 아리랑의 사설, 악보, 영상자료를 모두 결집하여 아리랑테마박물관, 아리랑학교, 아리랑축제, 아리랑관광상품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역별, 또는 유형별로 디지털화하여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지노산업의 자본 활용을 통한 아리랑유산의 발빠른 응용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예컨대, 정선에서는 정선아리랑제, 정선문화예술회관의 창극공연, 정선아리랑존수회관의 전수연습 등을 통해 보존[36]과 관광 양쪽을 살려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준의 아리랑 오페라, 아리랑 뮤지컬 등 장르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첨단 카지노의 놀

34) 이창식, ≪문학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역락, 2005, 7-8쪽.
35) 이창식, ≪문학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역락, 2005, 5-30쪽.
36) 김영기, <정선낙향아라리>, ≪백두대간 민속기행≫, 강원일보사, 1999, 228-231쪽.

이산업 속에 전통 노름아리랑－태백 사스랭이 등－을 접목하려는 특수성을 보여야 한다. 이를 항목화하는 공연 경쟁력은 태양의 서커스, 인상 유삼저 프로젝트를 넘어서도록 해야 한다. 정선아리랑 창극대본과 총체극대본은 예술적 가치를 드높이는 방향으로 진전시켜야 한다[37].

진도군에는 한 때 아리랑전시관이 있었다. 최근에는 다른 무형유산보다 진도아리랑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도에서도 진도아리랑 창작민요극 <아리아리랑 날 데려가오> 등이 무대에 공연되었다. 이러한 아리랑 문화산업화는 무형문화재를 되살리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말뿐만 아니라 세계적 공통언어라 할 수 있는 영어로 번역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민족문화유산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단계 상승시키는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 다만 원형가치의 보존을 중시하면서 예술적 창작의 변신은 더욱 전문화되어야 한다. 관련 설화나 역사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지역 아리랑의 미학을 녹여낸 작품인데, 일정한 수준에 오르지 못했다. 전통적 다시래기와 진도들소리에 바탕으로 둔 팩션적 아리랑 공연작품이 축제 항목으로 부각될 수 있다. 신화적 또는 역사적 이야기를 살리되 남도들노래의 전통을 접목시켜야 한다. 진도의 팩션(faction)을 살려야 한다. 예컨대 삼별초아리랑의 창출이다. 이야기의 변용, 서사의 스토리텔링화는 아리랑축제의 생산적 담론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밀양, 문경[38], 상주 등 아리랑축제에는 경상도 서사민요 전통과 이재욱의 아리랑 성과와[39] 관심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재욱의 이야기도 새로운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다. 경상도 아리랑의 문예적 성격 곧 정서와

37) 이창식, <아리랑의 정체성과 현장성>, ≪민요론집≫6집, 민요학회, 2001, 324-325쪽.

38) 이창식, <태백문화권과 문경새재아리랑의 가치>, ≪어문론총≫5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 편해문, <문경새재아리랑의 뿌리를 찾아서>, ≪문경의 어른과 아이들 노래를 찾아서≫, 2008, 12-49쪽.

39) 배경숙, ≪이재욱의 영남 전래민요집 연구≫, 영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165-183쪽.

생활 표출의 개방성을 살려, 농경의 상상력, 순수한 정감, 자연친화의 공연 등을 문화상품에 반영하는 하위항목을 확장해야 한다. 아리랑축제의 정체성 찾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화되어야 한다. 아리랑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포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리랑은 고유문화이기에 지켜 나가야 할 옛 문화[40]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리랑이 오늘의 우리 문화를 재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랑 관련 이야기 창조산업은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존, 그리고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랑유산의 지역축제적 재활용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의 부재와 콘텐츠 개발의 부정적 인식에서 오는 탓인데 이를 극복하고 아리랑의 생명력을 되살리기 위해 생업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음주가무의 미학적 전통이 있듯이 아리랑 창작 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표 2〉 아리랑 관련 전통형 축제의 행위항목 비교

층위 / 유형	과정	기능	외형	의미	사례
가무형 축제	홍보	관심유도	기획, 걸립	재미 위주, 지역경제 활성화	진도아리랑제
가극형 축제	행사	의례강조	영신, 여흥	역사와 제례 위주, 대동놀이	밀양아리랑제
가창형 축제	경창	지역문화	연행, 오락	정선・강원도 위주, 지역잔치	정선아리랑제

아리랑축제의 새로운 인식은 문화콘텐츠 전문화 단계에까지 진전되어야 한다. 아리랑축제에 대한 축제산업화는 원형의 보전이나 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국한해서는 부족하고 그 자체가 독자적인 문화패러다임－문화융성 아리랑창조산업 모형[41]－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농경 관련 전통

40) 이창식, <민요 가창자 지속과 마을문화>, ≪민속연구≫ 32집, 민속학연구소, 2016, 123-167쪽.

사회처럼 생생하게 구비적 원형을 전승시킬 수 없으나 아리랑 전형의 전통성을 지킨다는 신념 속에서 여전히 창된다는 자체도 중요하다. 아리랑의 재창조야말로 문화감성시대에 문화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활용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리랑 연구를 통한 스토리텔링의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지역문화론의 입장에서 지역문화 네트워크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추진하는 관련 아리랑주식회사는 물론 아리랑융합콘텐츠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아리랑유산은 남한에서는 지역축제(정선, 진도, 밀양 등)라는 이름으로 축제민요가 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아리랑축전'(평양 등), 중국에서는 조선족아리랑축전(연길 등)[42], 일본아리랑축제[43]이라는 이름의 정치민요로 활용되었다. 남북한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남한에서 K-퍼포먼스를 꿈꾸고 북한에서는 월드컵 붉은악마 열기 같은 초대형 집체뮤지컬을 꿈꾸고 있다. 남과 북, 해외까지 한민족이 사는 곳 어디에서든 민족자존의 디아스포라[44]가 되고 있다. 50여 종의 갈래에 9천여 수의 노랫말이 곳곳에 남아 있다. 아리랑은 1989년 남과 북이 어울려 부른 유일한 노래문학이다.[45] 1990년 남북한이 단일팀 단가로 합의하여 아리랑을 함께 불러 뜨겁게 하나되는 경험을 하였다.

충청아리랑이 디아스포라의 상황, 아픔과 걱정, 푸념으로 살아온 시대를 관통하여 옛 기억을 더듬게 하여 사람들을 귀환하게 싶도록 자극하며, 애환이자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부르며 아리랑 코드 한문화를 찾

41) 안상경,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암촌 '청주아리랑'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외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9, 95-138쪽.
42) 진용선, ≪중국 조선족 아리랑 연구≫, 정선군, 2008, 13쪽 : 리혜선, ≪두만강의 충청도아리랑≫, 도서출판 좋은날, 2001.
43) 일본의 대마도아리랑축제를 비롯하여 이츠키자장가 캐릭터 마을(구마모토현) 조형물과 "아로롱 아로롱 아로롱바이" 후렴이 주목된다.
44) 김보희, <한인 디아스포라 아리랑의 원형과 파생관계 연구>, ≪한국음악연구≫ 51집, 한국국악학회, 2012, 26쪽.
45)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 431쪽.

게 될 전망이 높다. 작게는 통일담론을 나타낸, 전체로는 디아스포라의 삶 모두를 담고 있는 아리랑 문화콘텐츠화에 주목을 해야 한다. 아리랑을 통해 이별, 그리움, 귀환하고자 하는 트라우마 정서까지 함께 나누며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이어지며 세계 곳곳에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의 아리랑[46]을 통한 회귀적 정서와 특유의 아픔은 주위 사람들의 감성까지도 자극할 것이다. 아리랑이라는 키워드는 국내이미지 브랜드화를 넘어서 대동, 저항, 치유 가치와 뜻까지 지녀, 다양하게 아리랑상품으로 재생산된다. 여기에 관련된 한민족의 아픈 일제강점기와 한민족 비극의 역사적 사실까지 내포하고 있다.[47]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살리지 못했다. '민족적' 관형어구가 달라붙어 통일축제, 평창동계올림픽축제에 사용될 것이다. 북한 아리랑 집체공연의 장점을 다시 보면서 OO연고 아리랑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 아리랑 담론[48]을 창조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이념모순, 체제모순, 민족모순을 녹일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가치 창조할 수 있고 통일아리랑담론이 나와야 한다. 아리랑이 월드컵에서, 북의 아리랑축전에서 불려졌다. 아리랑축제에서 북한 아리랑 공연문화는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집체미학과 신명의 특이성도 주목해야 한다. 아리랑콘텐츠사업은 문화원형을 통한 남북한과 중국의 공동창조협력프로젝트인 셈이다.

통일대공연 '아리랑퍼포먼스'는 북한식 아리랑축전의 장점을 살리면서 남한의 축제콘텐츠 장점을 보탤 때 세계적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 한민족사의 애정(哀情)과 격정(激情)이 체조, 무용, 카드섹션, 민족

---

46) 이창식, <중국 조선족 민요의 이주현상과 '청주아리랑'의 정체>, ≪중국 조선족 문화와 청주아리랑≫, 집문당, 2004, 84쪽.

47) 강보유, <중국인이 느낀 아리랑의 이미지>, ≪남도민속연구≫ 26집, 남도민속학회, 2013, 36쪽.

48)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리랑 민요라는 이름으로 2014년 11월 27일에 세계인류무형유산 등재.

배합관현악 연주, 대규모 합창 등을 통해 화평(和平)과 신명으로 형상화된 아리랑축전이다. 남한은 한류를 통해 드라마 주몽, 뮤지컬 명성황후, 거리응원 붉은 악마 등 아리랑 발상의 한류콘텐츠산업이 있다. 중국 장예모 감독의 인상프로젝트와 태양의 서커스 공연에 맞설 아리랑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벅찬 감동과 빼어난 상상력, 행복바이러스의 감성을 살려내는 가치창조의 한류형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아리랑은 남북 문화소통의 핵심코드다. 함께 연구도 하고 남북이 구술무형자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 기념도 살려 미래지향적인 남북 생산담론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아리랑축제론이다.

아리랑축제콘텐츠산업에 대한 협력기구를 만들고 상징적인 곳을 선정하여 이른바 클러스터사업형태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 동안 남북 양쪽에서 확산된 아리랑의 수립, 창작품 출현, 다양한 장르 접목 등을 살려 한류형 K-아리랑 시대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원천적인 아리랑축전 가요정책[49]을 받아들이고 남한의 구비적 지역문화 디지털콘텐츠 개발정책을 접목하여 명품다운 아리랑문화상품을 창조해야 한다. 교류공동사업으로 붉은악마 아리랑판타지(거리의 공연물), 안중근・우덕순아리랑(연극과 영화), 김산・나운규아리랑(애니멘터리), 모란봉곡예아리랑(뮤지컬 +오페라) 등을 남북이 상생하여 만들어야 한다. 남북한류의 창조산업 시발로 독특한 세계적 브랜드가 될 것이다. 아리랑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북한의 주체원형자원과 남한의 아이디어 인문자원이 어울리는 통일공감 만들기의 대응전략이다. “아리랑 아리랑 통일아리랑/ 삼천리

49) 집체창작민요의 긍정적인 측면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동지 섣달에도 꽃만 핀다-<북한아리랑>. 이야기의 골격은 민족(인민) 투쟁사의 굴곡과 극복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공동체유산이라는 인식 아래 체조, 무용, 카드섹션, 민족배합관현악 연주, 대규모 합창 등으로 표출하였고 주로 인민충성의 이념무기로 형상화하였다. 남북의 아리랑뮤지컬은 영웅(안중근 뮤지컬)과 집체식 영웅만들기가 상생되어야 할 것이다. 아리랑은 시, 소설, 희곡, 연극,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 여러 장르의 원천 자료로 작용하고 있다.

내 나라, 삼천리 내 나라 통일아리랑"을 부르는 마인드로 남북이 지혜를 모으는 논의도 필요하다.

아리랑축제가 지닌 남북 한계성을 진단하고 판을 펼칠 때 나타나는 유익한 정신적 감정과 민족적 연대의식을 다시 보자는 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의 고급화를 선언하되 세계적 공유의 덕목을 아리랑축제문화로 실천할 때 정치적 제한을 벗어나 또다른 공감의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아리랑의 남북 화해와 공영의 글쓰기를 통한 아리랑축제의 공동 개최도 거론될 시기가 되었다. 남북아리랑 협력창작은 노래운동 차원을 뛰어넘어 아리랑의 오페라, 아리랑의 연극제, 아리랑의 문화박람회 등을 구상해야 한다. 아리랑축제의 진정성에는 민족 모순과 이념 모순의 극복 논리가 있다. 이 과제는 지속적으로 화두로 삼아야 한다. 아리랑축제의 남북공동 프로젝트사업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리랑축제는 팩션(faction) 감각의 기획력이 요구된다. 보수적 전통형 축제는 이벤트형 축제든 킬러콘텐츠의 발상이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축제 만들기에는 전통적 감성과 상상력이 상생되어야 한다. 킬러콘텐츠의 구성력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 무형문화재의 원론적 창조유전자를 살리되, 특별한 민족공연학의 연출력이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축제의 외향에 매달리다가 보니 소프트 항목의 내향 실속이 없다. 아리랑문화유산의 미래를 염두에 둘 때 소비자 중심의 감동연출 극대화가 필요하다. 아리랑축제의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가 화쟁하는 건강함, 생명력, 역사성, 보편적 가치, 창조적 상상력 등의 명품축제적 요건이 두루 녹아 있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기반에 둔 아리랑축제는 기획 예술성을 높이고 고유의 지방색을 살리면서 세계적인 표적 시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리랑축제에는 호이징가의 놀이론을 빌리면 축제의 속성인 대국성의 난장과 놀이의 공연적 신명은 타축제에 비해 우위에 있다.

아리랑축제콘텐츠의 지역구비문학 관련 신화적 원형과 감성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연고의 신화적 상상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축제에 내재

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지역축제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 축제의 문화산업적 인식이 달라졌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정보를 취득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방식－보령머드축제 사례－에서 탈피해서 개인이 새롭게 재창조하는 형태인 UCC방식 등으로 소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정보시대에 무형과 유형의 연계문화, 구비문학작품을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상품화, 산업화함으로써 관광객을 포함한 문화소비자들에게 축제콘텐츠는 매우 중요하다.[50] 축제콘텐츠는 문화층위와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인문학적 기획력 접합을 통해 바람직한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아리랑축제는 지속적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비판적 인식의 대안으로, 아리랑축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축제 항목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축제콘텐츠를 만드는 창작 기법의 하나이다. 기술과 스토리를 적절히 조합하는 능력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스토리텔링 곧 이야기 창작방식은 현대인과는 아주 친숙한 관계이다. 현대인은 이야기가 있는 음식, 주택, 의복, 기호식품을 선호하고 각종의 디지털 서사에 익숙해 있다. 이렇듯이 지금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지 쉽게 이야기와 만나고 이야기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스토리텔링은 모든 장르를 넘어서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틀이다. 축제콘텐츠는 신화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축제의 현재적 이벤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아리랑축제도 이러한 신화적 감성 요소를 담아야 한다. 이러한 마인드를 축제콘텐츠로 연결할 수 있다. 근래에 우리의 경우도 신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축제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리랑축제의 논의에서 신화적 '블루오션' 전략이 필요하다.

아리랑축제의 배경과 아리랑 소재에는 다양한 설화가 존재한다. 아리

50) 임재해, <우리 축제문화의 비판적 인식>, ≪지역문화, 그 진단과 처방≫, 지식산업사, 2002, 239-244쪽.

랑유산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한다. 아리랑유산의 전통기반에는 스토리텔링의 공연화 가능성이 있다. 실제 신화 속에 담긴 기발한 상징과 상상력 하나하나를 킬러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듯이 아리랑축제 역시 이러한 이야기 팩션콘텐츠에 주목해야 한다. 아리랑축제는 놀이면서 게임서사의 국면이 있다. 스토리텔링 축제 항목화는 시나리오 전 단계, 곧 주제와 소재, 캐릭터, 배경,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하여 서사화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 아리랑축제 항목 만들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아리랑축제 기획은 멀티적 감각과 판타지 작가적 재미의 발상이 있어야 한다. 아리랑축제콘텐츠가 지역문화을 감동적으로 홍보하고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신화적 환상성을 도입하고 있다. 지역축제가 지역발전에 가져오는 효과는 크게 경제적, 문화예술적 그리고 물질환경적 효과로 구분하는데 특히 문화예술적 효과는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 전통문화 발굴과 계승, 지역 홍보와 지역정체성 살리기 등을 들 수 있다.[51] 아리랑자원을 통해 그 지역의 신화적 원형과 잠재적 전형을 어떻게 활용하고, 창조하느냐가 경쟁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아리랑축제가 지역 활성화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52]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사실성과 예술적인 허구성이 상생된 종합물이다. 제의와 신화가 전제되지 않은 축제는 생명력이 약하다. 아리랑축제는 허구적 상상력과 오래된 문화유전자가 상생되는 종합예술임을 거듭 상기해야 한다. 아리랑축제 항목에 문화예술행사는 전 예술에 걸쳐 광범위한 위치를 매김하고 있다. 현대의 지역축제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 가치를 지속가능성으로 창출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다. 아리랑축제는 지역문화를 토대로 새롭게 재구성된 것이며, 인공성의 축제이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창조 작업인데 이야기의 가치 창조에 달

51) 이창식, ≪지역축제와 문화관광≫, 박이정, 2011, 40-45쪽.
52) 김태경, <축제의 분화유형>, ≪한국의 축제 다시보기≫, 한국학술정보, 2006, 77-91쪽.

려 있다. 거기에 역동적 기획, 집행이 총체적으로 집약됨으로써 그 과정이 일종의 종합예술로 다듬어진다. 아리랑축제는 미분화된 종합예술형태에서 마침내 인위적인 솜씨의 극치인 '예술작품'이 된다. 아리랑축제의 항목에 대한 예술적 세련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아리랑문화의 창조인자를 녹여내어 명품 축제항목으로 만들어내는 구성원들의 지혜와 깨달음이 필요하다. 아리랑문화유산의 신화적 원형을 끌어내고 현대적 감각의 가치 창조가 통섭할 때 명품 축제가 된다. 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감성과 상상력의 달인이어야 할 것이다.

아리랑축제의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마케팅할 필요가 있다. 하동녹차축제, 보령머드팩축제, 화천산천어축제, 함평나비축제 등의 이른바 이벤트형 축제에 아리랑류 축제가 밀리는 것은 전문적 예술성 부족과 문체부 축제평가 지표 오류도 한 몫을 하였다[53]. 아리랑자원을 가치화하고 독창적으로 형상화할 만한 전문적 예술가들의 감성과 안목이 필요하다. 제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입장에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연고성이 있는 분야별 예술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일본의 불꽃놀이축제, 인도의 컬러축제, 브라질의 삼바축제 등도 지역 연고성(緣故性)을 바탕으로 예술 마니아들의 관심을 기울인 덕분에 명성을 얻었다. 아리랑축제 개발에 대한 모임에서 지역문화 종사자들이 참가하여 토론을 하고 새로운 대안 찾는 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리랑축제는 아리랑의 진정성과 정통성을 담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킬러콘텐츠 만들기의 대안이 필요하다.

아리랑축제는 지역공동체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고유한 문화전통을 내포하고 있는 예술총체라고 할 수 있다. 아리랑축제의 주체는 주민들이다. OO아리랑류 축제에는 공연축제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결과는 그 지역적 원형 OO아리랑의 가치를 오늘 지금 여기의 감성으로 담아낼

53) 이창식, ≪충북의 구전민요≫(충북학연구총서 7), 충북학연구소, 2012, 359쪽.

때 성공한다.[54] 총기 있는 소리꾼, 이야기꾼 한 명이 사라지면 박물관 한 채가 사라진다고 한다. 아리랑축제는 테마축제, 관광축제, 교육축제, 화합축제 등의 성격을 기반으로 하되, '상생과 신명'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이보형은 "아리랑축제가 성공하려면 축제 행위가 주민구성원들에 의하여 이뤄져야 한다[55]"라고 주장하고 '신화화' 형상과 공감대의 울림을 강조한 바 있다. 아리랑축제 킬러콘텐츠 창작프로젝트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원도 아리랑 예술 레파토리도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56] 아리랑대회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아리랑 일꾼들도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57]

축제는 놀이의 대동정신의 발현이다. 아리랑축제에는 대동놀이의 전통과 예술장르의 소통을 상생시키려는 전략이 있다. 소리놀이는 축제의 공연성에 핵심항목처럼 느껴진다. 아리랑은 한국인의 고유문화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가치를 새롭게 주목하여 다각적인 활용의 콘텐츠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아리랑축제 문화네트워크의 구성이 있어야 한다. 아리랑을 앞세운 세계토종소리대회의 큰그림 아래 지역자치단체, 관련 민간단체, 각종 아리랑동아리, 국악 관련 소리 연구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전략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아리랑 문화 구축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누구에게나 공유될 수 있는 아리랑축제 연대형성이 절실하다.[58] 아리랑 문화층위와

---

54) 정연정, <지역문화의 산업화에 관한 시론>, ≪충북문화론≫, 충북개발연구원, 2003, 498-504쪽.

55) 이보형, <아리랑소리의 생성문화 유형과 변동>, ≪한국민요학≫ 26집, 한국민요학회, 2009, 120쪽.

56) 강원도, ≪강원도 전통 민속예술≫, 1994 : 이창식, <아리랑>,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사, 1995, 470-472쪽.

57) 2012년 4월 국립민속박물관 아리랑 특별전시, ≪아리랑 세계화 국제심포지엄-추진실적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2, 39-41쪽.

58) 인사동아리랑축제는 중국 '아리랑공정'에 맞서 '육감으로 즐기는 아리랑'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소리, 색과 맛, 멋과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행사를 준비했다. 주요 행사내용은 맛으로 나누는 아리랑, 대중가요로 만나는 아리랑, 눈으로 보는

관련 백두대간 흐름과 한강 흐름을 따라 문화권 중심의 지역별로 연계하여 아리랑축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59] 킬러콘텐츠의 발상이 필요하다. 전통적 감성과 상상력을 통한 킬러콘텐츠의 구성력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 무형문화재의 원론적 창조유전자를 살리되, '아주 특별한' 민족미학의 연출력이 있어야 한다. 아리랑축제판에서 아리랑을 통해 한국적 정서와 춤, 현대적 문화의 신명을 느끼고 새로운 꿈꾸기가 시작되는 미학발현의 현장이어야 한다.

아리랑축제는 아리랑 구연 연고지 중심의 전통적 문화행사이다. 아리랑축제는 아리랑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판소리 등재와 판소리 축제 비교 차원[60]－에 힘입어 지역별 아리랑민요의 축제상품화로 구비문화축제의 길을 열고 있으며,[61] 앞으로 향유층 소비자 중심의 감동 극대화가 필요하다. 민요의 창곡과 사설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리랑에 내재된 향유층의 인정과 미학을 활용해야 한다. 아리랑의 전통적 인간화는 아무리 참단 디지털화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아리랑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리랑의 이벤트성을 살리는 도시형 아리랑축제 역시 아리랑 예술가 키우기와 그밖에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제나 아리랑은 우리와 함께 해왔고 또한 함께 호흡할 것이고 더욱이 내면 깊이에 생동하고 있다. 이 정서적 경지에 대해 아리랑 스토리텔링이 디지털기술과 손잡고 아리랑의 환상을 현실화하여 보여야 한다. 해석과 로드맵의 차원을 넘어 아리랑 융복합예술축제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 상상력과 감성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창조력이 동시다발로 통섭(通攝)되어야

아리랑, 젊음과 융합하는 아리랑 등이다.

59) 이창식, <아리랑유산의 세계화와 스토리텔링>,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집2호, 비교문화한국학회, 2012.

60) 김기형, <춘향제의 성립과 축제적 성격의 변모과정>, ≪민속학연구≫ 13, 국립민속박물관, 2003, 7-39쪽.

61) 박창현, <지자체 '아리랑' 선점 기싸움 치열 - 출혈 경쟁 역사·전통성 훼손 우려>, 강원도민일보, 2013.03.18. 참고.

한다.

아리랑축제 빅킬러콘텐츠 작업의 방법은 여러모로 문화적 경쟁력, 상업적 공감대를 키워야 한다. 아리랑축제의 빅데이타 지역적 네트워크 작업과 자료 프로그램의 알파고식 은행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 아리랑유산 킬러콘텐츠 제작에는 구비공동체 인간화를 중시하고 아리랑을 통한 정신적 영성－뭇사람의 소리는 쇠를 녹인다(衆口鑠金)－에까지 관심을 반영해야 한다. 이제 아리랑을 다시 조명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다. 남북이 아리랑정신으로 대동의 장을 열고 문화한류 K－아리랑을 통한 인류의 행복공동체로 진전시킬 수 있다. 아리랑축제의 창출은 K－아리랑 담론을 바탕으로 하되, 스토리텔링 문화창조산업의 중심에 자리잡도록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절실하다. 한류의 국제적 소통 덕분에 전통아이콘을 다시 보고 있다. 한류 확산에 대한 창조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아리랑축제의 공동선(共同善) 추구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대표 아이콘이다. 전통민요 중에서도 상징적인 문화 유전인자이다. 아리랑로드를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분포와 종류가 전승된다. 한민족의 삶 속에 짙게 뿌리내린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한민족의 공동체 진언(眞言)과 같은 존재인 셈인데 세계 여러 곳에서 주목하고 있다. 인류의 여러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상징의 노래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아리랑유산은 통일의 열쇠가 숨어있는 융합구비문학의 결정판이다.

4. 맺음말

‘아리랑’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한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

한 주체(개인, 단체 등)에 의해 전승되어 왔다. 중요무형문화재 아리랑은 개별 아리랑 악곡에 대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와 달리 각 시·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련 전승자를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여 지역 아리랑을 보호·전승할 수 있다.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양한 곡으로 분화하며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방식에서 한(韓)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대표적인 민요로서 한국의 구술사와 구비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콘텐츠라는 점 등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높이 평가되었다.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은 향토 아리랑의 지속적인 발굴·지원 등 아리랑의 보존·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취향시대에 맞추어 아리랑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콘텐츠 창출을 통해 아리랑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아리랑'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세계인류무형유산인 셈이다.

첫째, 아리랑축제의 변신은 진행형이다.[62] 아리랑축제, 발상의 전환 없이는 이벤트형 축제와 경쟁할 수 없다. 구비문학은 구술문화이면서 지역문화의 핵심 영역이다. 전형 위주의 무형유산 등재 취지에 우선 부합하면서 원형과 변형의 매력을 아리랑축제로 승화시켜 가야 한다. 구비문학의 본질적 공유 가치—아리랑유산 전형 가치[63]—를 찾아 축제 소비자

62) 아바타 영화 나비족의 우주나무 아래 노래도 넓게 아리랑이다. 아바타2도 기대된다. '디-워'에서는 엔딩 곡 '아리랑'이 도입되었는데 아리랑은 이무기가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화려하게 비상하는 모습에 부합하는 이미지인데 아리랑은 '트랜스 포머'의 음악 감독 스티브 자브론스키가 맡아 시애틀 교향악단이 연주하고 80여명의 합창단이 불렀다.

향유욕구에 부응하는 창조적 전략이 필요하다. 축제 평가 준거 전환과 지역연고권 자체 스토리텔링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둘째, 신명공동체 축제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 구비문학 공유 DNA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리랑 가창자 발굴과 전승기반 구축은 제도적 보강과 조사자와 연구자 역할을 확대하여 신통문화 프로젝트-구비문학 포럼 설립과 지속-에 부합하도록 대응해야 한다. 민요 아리랑 가창자 환경 조성과 회복은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조사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제도적 연구적 계승적 차원으로 점검과 대책 곧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성화 측면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융복합테마파크형 아리랑축제는 연고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세가 되고 있다. OO아리랑축제는 보전, 복원, 계승 등 다원론적 정돈 위에 테마 맞춤형 킬러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실경뮤지컬, 소리홀로그램, 비보이마당놀이, 재담아리랑판 등 항목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리랑박물관, 아리랑복합전수관 등 논의와 연결하여 보다 치밀한 융합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연구자는 '아리랑'에 대한 학문적 성취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성취-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소스 개발 영역-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소스는 구비적 웃음, 감성적 재미, 공공 상상력, 치유의 행복감 등이다. 구비문학 구술자원 활용 영역에서도 장소성과 지역성을 우선해야 한다.

넷째, K-아리랑 형태의 주도 한류축제는 국가를 넘어 인류공유자산의 소통과 공감 트렌드의 표본이 될 전망이다. 최근 K-문화 붐에도 불구하고, OO아리랑축제는 지역에서의 소통되는 잔치에 머물러 있다. K-팝 흐름으로 보아 K-아리랑 축제도 가능성이 크다. OO아리랑축제－지역전승의 구비적 장소성에 기댐－의 복원과 재현이 활발한데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여 엄정한 고증과 아울러 스토리텔링마케팅이 반드시 따라야 연착륙할 수 있다. K－퍼포먼스 차원에서 응용 영역을 전제로 분명 순수

6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시행 2016. 03. 28.) 자료.

학문으로 보면 구비문학 층위가 있다.

- 구비문학, 구술사와 아리랑학/정체성 담론
- 민족음악학, 민요학과 아리랑학/세방화 담론
- 민속학, 문화콘텐츠학과 아리랑학/한류화 담론

다섯째, 남북아리랑축제, 한중아리랑축제, 한일아리랑축제 등도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남북아리랑축제 구성과 협력 자체가 아리랑정신에 부합한다. 독립군아리랑・광복군아리랑・의병아리랑・정암촌아리랑・고려아리랑・통일아리랑 등과 같은 민족성을 지닌 아리랑유산에 대해 K-아리랑축제화가 필요하다. 몽골리안로드, 유라시아로드를 위한 한북중일아리랑축제의 길도 있다. 세계 K-아리랑 퍼포먼스대회 형태의 축제가 확장되어야 한다. 아리랑의 공연성과 대동성은 남북 모두 인류무형유산 등재와 한민족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명시되어 축제화가 더 다양해졌다. 다양해진 만큼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아리랑축제와 K-아리랑 공연문화의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여섯째, 위의 영역을 지속가능성으로 수행할 국립 구비문학융복합박물관, 국립 구비문학콘텐츠연구원 설립을 제안한다. 학문적 당위성은 물론 별별 기관 및 박물관이 설치되는 것을 보아, 이러한 영역의 학술 중심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구비문학 연구자가 엄격한 순수학문 연구를 지향하면서도 실용적인 성취의 적용에 대해 시선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차세대 연구자 육성을 위한 이 점 극복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삶 곧 향부론(鄕富論)에 매달리면서 지역구비문학 연구로서 '아리랑학'에 기여하고 봉사하게 되지만 순수학문 성과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다. 현재에 학문의 실용성과 지역적 소명감에 남다른 자부심—특히 신진 구비문학자 소임—이 없을 때 구비문학의 성과와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필자는 학문성과의 사회적 환원, 지역적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행복향부론, ‘지역미래학’, 감동봉사론을 제기한 바 있기에 구비문학축제 담론도 논의가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있다고 본다.[64] 구비문학유산의 가치창조 담론은 지속적으로 탐색하되 진행형 구술성을 살려 현장 공감대 확산에도 이 방면 연구자들이 앞서 주도해야 할 것이다.

64) 구비문학 활용의 국면에 한정하였다. 이 글은 한국문학회 기획주제 구술문화와 축제성 발제(2016. 6. 25. 부산외대) 후 자료 추가 검증과 쟁점을 좁혀 부분 수정하였다.

참고문헌

강원도, ≪강원도 전통 민속예술≫, 1994.
김기현, <밀양아리랑의 형성과정과 구조>, ≪민요론집≫4호, 민요학회, 1995.
김시업, <근대민요 아리랑의 성격형성>,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비평사, 1985.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
김열규, ≪아리랑 역사여, 겨레여, 소리여≫, 조선일보사, 1987.
김영기, <정선낙향아라리>, ≪백두대간 민속기행≫, 강원일보사, 1999.
김영희, <밀양아리랑제(현 아리랑대축제) 전승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돌아오지 못하는 아랑의 넋, 구천을 떠도는 그녀의 목소리>, ≪구비문학연구≫24, 한국구비문학회, 2007.
김재홍, <민족의 노래 아리랑정책제안>, ≪아리랑의 이해와 계승에 관한 정책보고서≫, 2004.
문화재청, ≪지역별 아리랑 전승실태 조사보고서≫(2004)(2006).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박민일, ≪아리랑 자료집≫ Ⅰ·Ⅱ, 강원대출판부, 1991, 1993.
배경숙, <이재욱의 영남 전래민요집 연구>, 영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안상경,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암촌 '청주아리랑'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외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9.
연규한, ≪정선아리랑≫, 문화인쇄사, 1968.
이보형, <아리랑소리의 생성문화 유형과 변동>, ≪한국민요학≫26집, 한국민요학회, 2009.
이인화 외, ≪디지털스토리텔링≫, 황금가지, 2006.
이정면, ≪한 지리학자의 아리랑기행≫, 이지출판, 2007.
이창식, <아리랑유산의 공공성>, ≪공연예술적 감성과 킬러콘텐츠≫,

월인, 2016.
이창식, <아리랑유산의 세계화와 스토리텔링>,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합콘텐츠≫, 글누림, 2015.
이창식, <아리랑유산의 세계화와 스토리텔링>, ≪Comparative Korean Studies≫20집2호, 비교문화한국학회, 2012.
이창식, <스토리텔링의 이해>, ≪문학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역락, 2005.
이창식,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8.
이창식, <전통민요의 자료활용과 문화콘텐츠>, ≪한국문학콘텐츠≫, 청동거울, 2005.
이창식, <아리랑의 정체성과 현장성>, ≪민요론집≫ 6집, 민요학회, 2001.
이창식, <인제지역 뗏목민요의 원형과 활용>, ≪한국민요학≫ 17집, 한국민요학회, 2005.
이창식 외, ≪중국 조선족의 문화와 청주아리랑≫, 집문당, 2004.
임재해,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1.
장정룡, ≪인제뗏목과 뗏꾼들≫, 인제군, 2005.
진용선, ≪중국 조선족의 아리랑≫, 수문출판사, 2001.
최혜실,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 한울, 2011.
한양명, <구비문학으로 축제 만들기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회, 2006.
편해문, <문경새재아리랑의 뿌리를 찾아서>,≪문경의 어른과 아이들 노래를 찾아서≫, 2008.

<Abstract>

The Value of Orally Transmitted Heritage and Killer Content for Festivals
– Focusing on the Greatness of Arirang, a Korean Folk Song

Lee, Chang-Sik

The inscription of Arirang, a quintessential Korean folk song since 1990s, on the UNESCO'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signals its worldwide recognition for a variety of greatness: countless variations handed down throughout Korea, the nature of the refrains and the overall melodies hol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respected region, the distinctive lyrics describing the travails encountered by the subject of the song and the significance as cultural content essential to understanding of the Korea's oral history and orally transmitted heritage. The achievement has laid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folk song, including the constant discovery of and support for regional variations. What's more, in keeping with the nationwide initiative to promote cultural content in recent years, continued efforts have been made to share and spread the values of Arirang. The popularity of the song that is recognized as both a National and a World'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is now expected to help increase the number of the Arirang festivals.

The Arirang Festival still has a long way to go. If the festival is to

compete on a level playing field with other regional events, there is a need to transform the way it is organized and performed. The oral literature means the oral culture and plays an integral role in creating local culture. In fact, the cultural festival is required to turn itself into something that combines yesterday and today while focusing on its originality, the biggest contributor to its inscription. In other words, the efforts to transform the current festival should be done in such a way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articipants by consistently seeking the distinctive values of Arirang. Changing the criteria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festival and encouraging an active, local participation into the content development can be a way. At the same time, the competitiveness of the festival for an amusing community should be further sharpened. Seeking a way to share the oral literature with more people is also required.

The popularity of the Arirang festivals that now take the form of a comprehensive theme park has increased notably among regions where the song was originated. The festivals that named after their originating provinces are necessary to discover new killer content based on a certain theme while making multifaceted approach to preservation, restoration and transmission of their original values. The content might include Silgyeong (scenic background) Musical, acoustic holograms, B-boy Madang Nori and Jadam Arirang. Partnering with the Arirang Museum and Arirang training centers will also be helpful in systematically developing the new content. In doing so, the development should focus not only on academic but practical achievements (cultural content and storytelling resources), which can make contributions to the improvement of local

communities and quality of their people's lives. The resources can be found in orally transmitted laugh, emotional fun, shared creativity and a sense of happiness for healing. When it comes to utilizing the oral literature and resources, places and regions are the first thing to consider.

The Korean Wave festivals led by K-Arirang is expected to play a critical role in promoting communication and sympathy not only in Korea but countries across the world. Despite the booming K-culture in recent years, most of the participants of numerous Arirang festivals are locals from their respected regions. However, given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K-pop songs worldwide, the K-Arirang festivals have the potential to gain such popularity. It is also likely that such festivals can be held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and China and even Japan. In fact, the North-South Korea Arirang festival fits exactly the spirit of the Arirang. The fact that the greatness of Arirang that is its performance and the capacity to unite people is inscribed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oth in two Koreas and that the song becomes a symbolic heritage of the Peninsula provides us with more opportunities to create a variety of the festivals than ever before. As such, now is the time to accelerate the efforts to develop killer content by seeking a vision for a future global Arirang festival and K-Arirang event which can appeal to peop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y Words : Arirang Heritage, Arirang festivals, UNESCO'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signals, K-Arirang, storytelling, killer content

▌논문접수 : 2016년 7월 15일
▌심사완료 : 2016년 8월 2일
▌게재확정 : 2016년 8월 16일